

원 저

한국 한의사 조직에 대한 연구

신순식, 이현지¹⁾, 서부일²⁾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부¹⁾,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²⁾

A Study of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Organization

Soon-Shik Shin, Hyun-Ji Lee¹⁾, Bu-Il Seo²⁾

Department of Prescription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Eui University, Faculty of Social Science, Keymyung University¹⁾, Department of Herb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San University²⁾

Almost all professions organize into their own occup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these organizations, professionals try to awaken to and pursue their own group interests. Moreover, the members of a profession endeavor to develop an occupational ideology through their organization. Based on this occupational ideology, these individuals try to expand the span of their control on the occupation's related areas. Finally, they work to build an organizational structure that can be easily reproduced so as to facilitate the creation of new branches of the organization in the future.

Efforts toward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 and securing its status have greatly affected the professionaliz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In 1952, a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organization was created, and since then it has developed rapidly. Since the 1970s, many college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have opened and the number of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has grown. Many branches of the initial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organization have been established, and as a result, these organizations have developed in quantity as well as in quality. (*J Korean Oriental Med 2002;23(2):119-124*)

Key Words: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organization, professionalization

문제 제기

전문직에게 있어서 직업 조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거의 모든 전문직 단체는 직업 협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자신들의 집단 이익에

대한 의식화 작업을 하고, 집단 이익을 추구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들은 조직을 통해서 자신들의 직업 영역에서의 독점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발하고, 조직 내에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독점을 위한 재생산 구조를 형성한다. 대부분의 전문직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직업 협회를 조직하였다. 이 시기에 영국의 회계사 집단, 미국의 변호사, 건축사, 의사 집단들이 조직을 형성하였다.

개업의와 종합 병원 의사를 비교해 보면, 조직의

· 접수 : 2002년 1월 24일 · 채택 : 2002년 4월 16일
· 교신저자 : 신순식, (우)614-05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산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Tel. 051-850-7414, Fax. 051-853-4036, H.P. 16-9225-5200, E-mail: ssshin@dongeui.ac.kr)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개업의는 의료 전문직으로서의 지식에 기반해서 권위를 가지지만, 종합 병원의 의사들은 조직에 바탕을 둔 권위를 부여받는다. 전문직이 가지는 권위의 근본적인 출발은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위를 유지하는 데는 조직의 영향이 크다¹⁾.

조직은 전문직 종사자가 전문직으로서의 직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 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조직은 기술 습득 과정을 통제한다. 면허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조직은 면허 취득자들의 직업 행위를 감독하고 통제한다.

조직의 이러한 기능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자극제가 되고, 결과적으로 전문직이 자신의 직무 영역에 대한 독점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전문직 단체들은 여타의 직업 단체들보다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더 강한 통제력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문직의 경우 그 직업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 위신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직 단체들이 갖고 있는 강한 결속력은 다른 관련 집단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집단 이익을 도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직 집단은 조직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룸으로써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전문직 직업 집단들은 시장의 독점과 직업적 지위의 개선을 추구하는데, 맥도널드는 이를 전문직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다²⁾.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전문직 단체들은 협회 건물을 증축하고, 협회 활동을 소개하는 소식지 등의 홍보물을 발행하며, 다양한 후원 행사, 봉사 활동, 학술 행사를 전개한다.

오늘날 한국 한의학이 상당한 수준의 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한의사들 내부의 결속 강화와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강화가 전문화 과정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한의학이 전문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을 결성하여 왔으며, 또한 조직의 내적 통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이루어 내었는지를 대한한의사협회, 지역 한의사 조직, 전문학회의 설립과 활동을 통해서 살펴 보았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설립과 활동

표1에서 나타나듯이 해방과 함께 한의학계는 전국 규모의 한의사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1945년 '조선의사회'의 결성이다. 조선의사회는 경기도의생회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 규모의 한의사 조직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창립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탄압 정책의 결과로 피폐화된 한의학의 부흥을 위해서는 한의사 단체의 조직화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었다.

1952년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었다. 국민의료법 제53조에는 '의료업자는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의 동업자회를 중앙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 따라서 한의사들도 대표 단체 설립 작업에 들어갔다. 창립을 위해 1952년 11월 11일 결성준비상임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각 지방에는 지방 조직이 결성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그래서 지방 조직의 결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대표 2명씩을 각 지방에 파견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52년 12월 10일 드디어 결성 총회를 열어서, 임원단을 선정하고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표 1. 대한한의사협회의 설립 과정³⁾

연도	조직 명칭	특 징
1945	조선의사회	경기도 의생회를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한의사 조직을 결성하였다.
1952	대한한의사회	한의사회 설립을 촉구하는 보건부장관의 공문에 의해서 대한한의사회 결성준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1952	대한한의사회	대한한의사회 결성 총회가 개최되었다.
1953	대한한의사회	사무소를 서울로 이전하였다.
1959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사단 법인체로 개편하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952년 12월 16일 [지령 제4435호]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휴전과 함께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도 1953년 10월 2일 사무소를 서울로 이전하였다. 그후 1959년 사단법인체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립 당시 대한한의사협회의 사업 계획은 다음의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첫째, 학술 연구 사업으로, 협회 내에 학회를 두고 학술 연구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강습함으로써 회원의 자질 향상과 학술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회원 실태 파악 사업으로, 협회 창립 당시는 전쟁 중이었으므로 이것은 중요한 업무였다. 이때 조사된 전국의 회원 수는 총 1,429명으로 서울 149명, 경기도 145명, 황해도 13명, 강원도 75명, 충청북도 128명, 충청남도 190명, 전라북도 108명, 전라남도 90명, 경상북도 206명, 경상남도 322명, 제주도 3명 등이었다.

셋째, 한약재의 무역 통제 사업으로, 이것은 1950년대 한의약계가 당면하고 있던 선결 과제였다. 당시 외국 무역 상인이 홍콩, 대만 등으로부터 당재(唐材)를 수입하여 폭리를 취함으로써 국내 한약재 가격은 최고 10배까지 폭등하였다. 그러므로 한약재의 유통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설립된 대한한의사협회의 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는 외적으로는 협회 내 지부의 수, 회원 수 등이 있고, 내적으로는 조직 내 결속력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있다. 다음의 표2는 한의사 협회 회원 수의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표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원 수는 1990년 이후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료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협회 등록과 회비 납부에 불참하는 한의사는 없다. 그러므로 각 연도마다의 협회 회원 수는 해마다 의료 기술을 공급하는 한의사의

료 인력의 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위의 표를 통해서 한의사 공급의 증가를 분석할 수 있다. 협회 등록과 회비 납부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한의사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무 조항이라는 것은 협회의 내적 통제력과 결속의 정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가 조직이 갖고 있는 특징의 하나이기도 하다.

지역 한의사 조직의 설립과 활동

1950년대 초반 지역 한의사 조직은 모두 8개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국민 의료법 제정 이후에 대한한의사협회의 주도하에서 설립되었다. 그 후 전라남도한의사회가 1959년, 제주도한의사회가 1962년에 설립되었고, 경상남도한의사회에서 부산한의사회가 독립하였고, 경상북도와 경기도의 행정 구역 개편 시에 대구한의사회와 인천한의사회가 1981년에 신설되었다. 그 후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행정 구역 개편 시에 광주한의사회와 대전한의사회가 신설되었고,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행정 구역 개편시에 울산한의사회가 1996년에 신설되어, 현재 총 16개의 전국 지부가 존재한다.

표3은 1950년대 초반 지역 한의사 조직의 형성 과정을 요약하고 있다. 이 시기의 한의사 조직은 전후의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직의 결집력은 낮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조직이 몇몇 한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앙회에서 파견한 인사를 중심으로 설립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한의과 대학이 증설되어 정규적인 교육 기관이 확충되면서 한의사의 수적인 증가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수적 증가는 한의사 조직의 양적 확대를 초래하였다. 2000년 2월까지 대한한의사협회의 각 지부의 분회와 회원 수를 보면 표4와 같다.

표 2.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원 수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회 원 수	3,977	4,244	4,516	4,837	5,380	5,668	6,625	6,505	6,789	7,349	7,999

표 3. 1950년대 초 지역 한의사협회 조직 과정³⁾

조직 명칭	연도	창립 과정
경상남도한의사회	1951	해방 후 부산에는 경상남도동양의약회와 한국의약회 등과 같은 한의사 단체가 있었으나, 이들은 국민의료법에 근거한 의료 조직이 아니라 동업자 임의 단체였다. 국민의료법에 근거하여 1951년 12월 경상남도한의사회가 결성되었고,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라북도한의사회	1925	1920년 19명의 의생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의생회가 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1925년 3월 회원 51명으로 창립 총회를 열었다. 이 조직은 그 후 26년간 유지되다가 국민의료법 제정과 함께 전라북도한의사회로 개칭하였다.
경상북도한의사회	1952	경상북도에도 해방 이전부터 의생회가 있었다. 이들 조직은 국민의료법 제정에 따라 의생이 한 의사로 승격되면서 1952년 9월 한의사회 조직을 창립하였다.
충청북도한의사회	1953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대한한의사회에서는 회원을 파견하여 지방 조직 결성을 촉구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1953년 1월 충청북도한의사회가 결성되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1953	부산으로 피난하였던 한의사들이 귀경하면서, 한의사회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1953년 5월 서울특별시한의사회를 창립하였다.
강원도한의사회	1953	강원도한의사회는 1953년 7월에 창립되었다.
경기도한의사회	1954	대한한의사회 창립 2주년이 경과하도록 경기도 내에는 한의사 조직이 없다가 1954년 9월에서야 도내 한의사 28명을 중심으로 창립 총회를 열었다.
충청남도한의사회	1954	대전을 중심으로한 충청남도에는 1954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충청남도한의사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표 4. 지부별 분회 및 회원 수⁵⁾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분회	26	16	9	9	5	6	5	32	15	8	15	10	15	17	20	0	208
회원	2,510	721	604	342	184	325	158	1,180	229	200	408	198	233	440	434	54	8,220

전문 학회의 설립과 학회지 발간

학회의 발전은 전문가 조직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학회 활동이 활성화되어야만이 전문가 조직의 지식 체계가 발전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은 분과 학회를 단위로 해서 결속력을 다지며, 새로운 지식을 학회를 통해서 공인하고, 집단 내에서 지식을 유통시킨다. 그러므로 학회의 활성화는 전문가 집단의 질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된다. 즉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학술 활동은 연구의 수준을 양적으로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한의학 관련 학회의 설립과 활동을 요약하면 표5와 같다. 동양의학회의 결성을 시작으로 해서 한의학계에도 한의학의 발전과 학문적 활성화를 위한 학회 설립과 활동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전후의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의사들

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오늘날 한의학계의 학회는 원칙적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학술 기구로 존재한다. 초기의 학회였던 동양의학회와 동방의약회는 강연회 개최, 학술 교류 등의 활동을 주로 하였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서 학술 연구를 담당하는 기구로 대한한의학회가 발족하면서 학회의 위상은 달라졌다. 개별 한의사들을 중심으로한 활동이 아니라 한의사 전문가 조직의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학회가 담당하였다. 그 이후 대한한의학회는 한의학 교육, 편찬 사업, 연구, 한의학 지식의 보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학회가 활성화되면서 표6과 같이 분과 학회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1962년 대한한의학회가 창립된 이후에 60년대에 1개, 70년대에 9개, 80년대에 5개, 90년대에 10개의 분과 학회가 설립되어, 2000년 현재 25개의 분과 학회가 존재한다. 이상의 분과 학회 이외에도 한의학계에는 준회원 자격의 학회가 4개

표5. 학회 설립⁵⁾

학 회 명	창립 연도	활 동	학 회 지
동양의약회	1947	조선의사회를 중심으로한 53명의 한의사들이 한의학계의 학술 진흥과 한의학의 체계화를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한 한방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양의학」
동방의약회	1955	한의학계 내의 학술 연구 기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창립되었다.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한국동양의학회로 개칭하였다.	「동양의학」
대한한의학회	1963	대한한의사회 내에 학술 연구를 담당하는 기구로 발족하였다. 이후 교육, 편찬, 연구, 사업, 총무 부장으로 구성되는 체계를 갖추었다. 학술 강습회와 강좌를 잇따라 열었다.	「대한한의학회보」 「대한한의학회지」

표6. 대한한의사협회 내 분과 학회⁶⁾

	창립 연도	학회지 명/ 간행 주기/ 창간 연도
대한한의학회	1962	대한한의학회지/ 연 2회 1999년부터 연 4회로 조정/ 1963년
내과학회	1975	내과학회지/ 연 2회/ 1976년
생리학회	1975	동의생리학회지/ 연 2회/ 1983년
병리학회	1975	병리학회지/ 연 2회/ 1984년
침구학회	1970	침구학회지/ 연 2회/ 1984년
본초학회	1962	본초학회지/ 연 2회/ 1986년
소아과학회	1975	소아과학회지/ 연간/ 1986년
부인과학회	1975	부인과학회지/ 연 2회/ 1987년
원진학회	1983	원진의사학회지/ 연 2회/ 1987년
외관과학회	1974	대한외관과학회지/ 연간/ 1988년
사상학회	1975	사상의학회지/ 연 2회/ 1989년
신경정신과학회	1970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연 2회/ 1990년
방제학회	1986	방제학회지/ 연간/ 1990년
재활의학학회	1983	재활의학과학회지/ 연 2회/ 1991년
맥진학회	1987	맥진학회지/ 연간/ 1995년
추나학회	1993	추나저널/ 격월간/ 1995년
한의정보학회	1992	한의정보학회지/ 연간/ 1995년
한방중앙학회	1994	한방중앙학회지/ 연간/ 1995년
의료기공학회	1993	대한기공학회지/ 연 2회/ 1996년
진단학회	1995	대한한의진단학회지/ 연간/ 1997년
약침학회	1993	약침학회지/ 연간/ 1997년
스포츠학회	1984	대한스포츠입문/ 단행본/ 1998년
영상진단학회	1994	
한국의사학회	1999	
대한경락경철학회	1999	
대한에방의학회	1999	

표7. 학술 자료의 현황⁶⁾

(단위: 편)

연도	자료	대한한의학회지	분과학회지	학위논문 석사	부설연구소 박사	기타미등록 단체	연대별총계
1960년대		273		37			310
1970년대		211	13	248	10	106	489
1980년대		343	372	513	228	702	2,010
1990년대		529	2,212	1,697	533	1,574	6,868
총 편수		1,356	2,597	2,396	771	2,546	9,825

주: 1990년대 자료는 1990에서 1998년까지 발표된 학술 자료임.

있으며, 대한한의학회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미등록 단체로 50여 개의 학회가 존재한다⁹⁾.

논문 발표 실적을 통해서 이들의 활동을 분석해보면, 1963년 대한한의학회지를 통한 연구 발표가 시작되면서, 1999년 6월까지 분과 학회지를 통해서 발표된 논문은 총 4,020편에 이른다. 특히 1990년 이후에 분과 학회를 통한 학술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과 학회의 회원 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원 수와 일치한다. 대한한의사협회에 소속된 회원은 1인 1개의 분과 학회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 관련 학술 자료의 현황은 표7에서 나타나듯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에는 대한한의학회지를 통한 학술 발표보다 분과 학회지를 통한 학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석·박사 학위 논문의 증가를 통해서 한의학의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설 연구소를 통한 학술 활동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였지만 전체 학술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사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는 한의과 대학의 증설과 대학을 중심으로한 학술 연구 지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를 기점으로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소의 학술 활동이 한의계 발전의 주축이 되고 있다.

각 대학의 부설 연구소에서 발표된 논문의 현황은 표7과 같다. 표를 보면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한 활발한 연구 활동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에 이르면 각 대학을 중심으로한 국책 연구 지원 사업과 의약 산업의 투자가 시작됨으로써, 대학 부설 연구소의 활동이 한의학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의학이 의학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지식의 생산과 시술의 표준을 만들어 내는 단계를 넘어서 서서히 산학 복합체로서 발전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이상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의사 조직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직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의학은 해방 이후 팔목할만한 전문화를 이루어 내었다. 해방을 전후하여 한의사들은 몰락한 자신들의 지위에 문계 의식을 느꼈고, 조직 강화를 통한 위상 정립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 결과로 1952년 대한한 의사회가 결성되었고, 실질적으로 한의사 조직이 발전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한의과 대학의 증설로 한의사들의 수적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한의사 조직은 양적인 발달과 함께 학회와 분과 학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질적 발전을 경험하였다.

참고 문헌

1. Freidson E. Professional Dominance. The Social Structure of Medical Care. New York: Atherton Press. 1970:105-126.
2. 맥도널드(Keith M. MacDonald). 전문직의 사회학. 서울:일신사. 1999:322-323.
3.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40년사. 서울:대한한의사협회. 1989:63-81.
4. 대한한의사협회. 2000년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서울:대한한의사협회. 2000:3-10.
5. 이현지. 한국 한의학의 전문화 과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97,101.
6. 변성희. 한의약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인터넷상 한의약 학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검색도구개발. 경산대학교 한의과 대학. 1999:19-36.